

■ FIFA, 베어백호 진단

“골 결정력 부족 수비 조직 취약”

장기 목표에 대해선 긍정적

“베어백의 청사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고 사인도 나왔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베어백호의 마스터플랜을 조명했다. FIFA는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 톱 뉴스로 ‘성공을 향한 베어백의 청사진’을 다뤘다.

핀 베어백은 축구계에서 그다지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한국에선 꽤 인기있는 편이라면서 그는 히딩크 이후 외국인 사령탑 세 명이 이뤄내지 못한 막중한 과제를 직면해있다고 평했다.

베어백은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자마자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 우승을 단기 과제로 제시했고 한국과 세계 수준의 격차를 좁히는 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FIFA는 설명했다.

또 태극전사의 5대 조건(지능, 승부욕, 빠른 패스워크, 스피드, 파워)을 제시해 훈련 강도와 스태미나만 강조하던 이전의 지도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베어백은 6만3천명이라는 많은 관중 앞에서 치른 지난 9월2일 이란전(1-1 무)에서 골 결정력 부족과 취약한 수비 조직력으로 비난을 받아야 했고 이런 실수는 지난 11일 시리아전(1-1 무)에서 되풀이됐다고 FIFA는 강조했다. 이 두 경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갖 출범한 베어백호에 ‘경고 사인’이었다는 말도 곁들였다.

김치우(인천), 오장은(대구), 염기훈(전북) 등 세 얼굴을 과감히 투입해 세대교체를 실행한 지난 8일 가나전(1-3 패)에서는



두 골차로 뒤지자 가나 팬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연호해주는 상황을 벤치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고 FIFA는 묘사하기도 했다.

FIFA는 베어백호가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마스터플랜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았을 뿐이라며 성급한 평가를 유보했다.

울산 오늘 AFC 챔피언스리그 2차전 전북



이천수-김형범 ‘해결사’ 맞대결

울산과 전북은 18일 오후 7시30분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2006 AFC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을 앞두고 ‘필승카드’로 이천수와 김형범을 각각 뽑아들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1차전 원정에서 승리(3-2승)를 맞은 울산은 비기지만 해도 결승이 보장되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더구나 울산은 원정에서 3골이나 뽑아 전북에 0-1로 지더라도 ‘원정경기 다득점 원칙’에 따라 결승에 오른다.

울산이 내세운 비장의 카드는 뛰어난 스피드와 골결정력을 자랑하는 이천수.

지난달 16일 경남FC와 K-리그 경기 이후 발목 통증을 호소했던 이천수는 베어백호 소집도 마다한 채 재활과 몸 만들기에 주력했고, 이번 2차전에서 최성국-레안드루

투톱의 뒤를 받쳐주는 플레이메이커 겸 새도 스트라이커로 공격의 선봉을 맡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면 어려운 가운데 원정경기를 치를 최강희 전북 감독은 ‘챔피언스리그의 사나이’ 김형범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형범은 올해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감독을 웃고 울린 주인공이다. 조별예선 감바 오사카, 다렌 스테와의 홈



경기에서 2골씩 터뜨리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지만 8강 1차전에서 퇴장당해 8강 2차전과 4강 1차전을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럽축구연맹, FIFA 독주에 제동

월드컵 수입금 배분 등 돈 문제 적극 개입할듯

유럽축구연맹(UEFA)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컵 수입 전용 등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축구연맹(UEFA)이 주축이 된 각 대륙 축구연맹은 12월 FIFA 집행위원회에 앞서 회합을 갖고 대륙연맹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FIFA 운영에 개입할 권리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UEFA는 특히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적으로 FIFA에 의해 이뤄지는 월드컵 수입금 배분 등 ‘돈 문제’에 적극 간섭할 것으로 알려졌다.

UEFA는 “FIFA는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를 운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입금을 각 대륙에 동등 배분하고 있지만 이는 대륙의 규모나 대륙연맹의 역할 등에 비해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기를 들었다.

현재 FIFA는 총회에서 207개 회원국이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주요 결정은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이 이끄는 24인 집행위원회에서 주로 이뤄진다.

레나르트 요한손 UEFA 회장은 올 연초부터 FIFA의 전횡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고 FIFA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지원 사격을 받아 EU가 축구계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

FIFA-IOC 연합전선과 UEFA-EU 동맹군의 힘 대결 구도로 전개될 국제축구계 권력 재편 싸움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女월드컵 출전팀에 상금

우승 100만달러·준우승 80만달러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도 출전국들이 상금을 받게 됐다.

FIFA는 17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07 중국 여자 월드컵 때 총상금 600만 달러(약 57억 원)를 준비해 16개 출전국에 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자 월드컵에서 상금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FIFA에 따르면 일단 우승국은 100만 달러(약 9억5천만 원)를 받고 준우승 80만 달러, 3위 65만 달러, 4위에는 55만 달러가 각각 돌아간다.

5위에서 8위 팀은 35만 달러, 9위부터 16위까지도 20만 달러를 받는다.

한편 지난 대회 우승국 독일은 A조, 개최국 중국은 D조 시드를 배정받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지성 ‘계약위반’ 9억원대 피소

前에이전트 “수수료·위약금 달라”

축구 선수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전 스포츠 에이전트(대리인) 계약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위약금과 밀린 수수료를 달라”는 9억원대의 수수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지성의 전 에이전트 계약사였던 FS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는 수수료 등 청구소송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는 지난해 3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올 7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일방적 계약 파기 및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

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맺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원고는 이 기간 피고를 대신해 연봉협상이나 광고출연 등 제반 활동과 관련한 사실상·법률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런데 피고는 올 7월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니 8월에는 JS리미티드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과의 연봉협상 권한을 부여한 뒤 연봉 재협상을 마쳤다. 피고의 행위는 아무런 이유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며 계약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용병 산드로 내달 복귀

지난 해 프로축구 K-리그에서 17골을 넣은 일본계 브라질 용병 공격수 산드로 히로시(27·전남 드래곤즈)가 7개월이 넘는 장기 재합을 거쳐 다음 달 초 구라운드에 복귀한다. 전남은 “산드로가 체력 테스트 결과 11월 초에는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 18일(수)
 - ▲제87회 전국체육대회(13:00·KBS1)
 -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강원랜드-아이스벅스)(14:00·KBS SKY Sports)
 - ▲AFC 챔피언스리그 축구 준결승 2차전(울산-전북)(19:20·Xports, SBS스포츠)
- 19일(목)
 -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3차전(첼시-바르셀로나)(03:00·MBC ESPN)

<p>무형산 경매 전문회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p> <p>부동산 경매 전문회사</p> <p>부동산 경매 전문회사</p> <p>부동산 경매 전문회사</p>	<p>대원부동산</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대지부동산</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고은증권통계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호남랜드증권통계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p>부동산 전문회사</p>
--	---	---	---	---	--